

<2021년 8월 22일 주일말씀>

제 때 하면 성공한다

본 문 [시대 성경]

제 때 하면 성공한다
의식 말고 담대히 행해라

[에스겔 37장 7~10절]

- 섭리사 전체는 10년의 무덤 기간이 지나고,
2018년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활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의 역사’를 펴 왔습니다.

-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보았는데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니,
죽은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모두 살아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대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돼서 부활됐습니다.

-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를 통해 ‘이 시대 부활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며
3년 6개월 동안 ‘부활의 역사’를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섭리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펴 오셨습니다.
-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섭리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말씀’대로
너무 의식하지 않고, 작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행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때도 역시 모두 살아나게 됐습니다.
- 부활됐으니, 계속해서 살았을 때 하듯이 해야 됩니다.
- 작게라도 하면, 아주 유능해지고 능숙해집니다.
만일 작게라도 안 하면, 죽는 신앙이 됩니다.
- 섭리사 은하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는
모두 코로나를 의식하면서 몸을 사리지만 말고,
작게라도 충성스럽게 행해야 됩니다.
- 지금은 전체가 ‘작은 인원’으로 쪼개서 행할 때입니다.
올해가 가도록 계속해서 이같이 해야 됩니다.
- 제때 해야 성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를 가로 막는 것이 있어도

그때가 ‘기회’ 이며 ‘제때’ 이니,
쉬지도 말고, 신앙의 잠을 자지도 말고 절대 행해야 됩니다.

- 제때 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 한국을 중심한 전 세계 각 나라의 섬리의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말씀’ 을 듣고 행하여 부활됐으니,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룬 자들〉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사랑의 삶’ 을
계속해서 살아 나가야 됩니다.

- 작게라도 행하지 않으면,

육의 삶도, 영의 삶도 실패하여 또다시 ‘죽은 자’ 가 됩니다.

- 사람이 어떤 것을 두고 행할 때 의식하면,

‘자기 생각’ 이 자기를 막고 못 하게 하여
‘될 일’ 도 안 됩니다.

- 축구를 할 때도 ‘상대 골키퍼’ 를 의식하면,

‘골 게터’ 가 볼을 차기만 해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의식함으로 인해서 볼을 못 차고 실패하게 됩니다.

- 섬리를 뛰면서도

‘상대’ 를 의식하고, ‘환경’ 을 의식하고, ‘막는 것들’ 을 의식하면,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같이 행해 주시니,
의식하지 말고 즉시 신속하게,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절대적인 존재자시라,
의식하지 않고 행하십니다. 무사통과입니다.
- <주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는 의식하지 않고 행하십니다.

자기를 막는 것들과 단점들과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을
모두 의식하면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니,

<주>는 의식 말고 행하라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길’을 두고, ‘해야 할 일’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십니다.

-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됐듯이,
우리도 부활되어 <시대의 군대>가 됐으니,
다윗같이, 여호수아 군대같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하여
이 시대를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모두 우리들 세상입니다.
- 우리 모두는 <시대 신부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 년 역사의 주인들’,
‘가정과 민족과 세계의 주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하여

‘시대의 운전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 <시대 신부>, <시대의 주인들>이라
주님과 일체 되어 행하기만 한다면,
불가능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주인들>은 ‘주인 행세’를 해야,
상대가 주인이 아닌 고로 꼬리를 내립니다.

- 며칠 전에 월명동에 방문한 여자 중고등부와
선생님과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6명과 경기했습니다.

여자 중고등부도 약하지만, ‘주’가 시키는 대로 같이 하니
상대가 전문으로 공을 차는 남자들이라도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20분 경기에 15골을 넣고, 3골을 먹어서 ‘15:3’으로 이기고,
그다음 날에는 10분 경기에 10골을 넣고, 2골을 먹어서
‘10:2’로 이겼습니다.

<이긴 비법>은 목숨 걸고 뭉쳐서 막고, 뛰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머리 삼고 패스하면서
핵인 ‘골 게터’를 중심해서 뛰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자라도
‘주와 같이 뭉쳐서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 모두 그러합니다.

‘소모임’ 이라도 뭉쳐서 주와 함께 일체 되어 하면, 다 승리합니다.

- 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행하니, 절대 승리합니다.
-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제때 해야, 승리한다.

둘째, 의식 말고 해야, 이긴다.

셋째, <3년 6개월>은 ‘부활기’ 였다.

이제 살아났으니,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 을 이루자.

넷째, <코로나>는 ‘계절’ 같이 물러간다.

물러간 후에 그때 하면 늦는다.

그전에 작게라도 계속 행해라.

행해 보니, 전체가 살아나지 않느냐.

- 계속 의심 없이 믿고, 담대히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